

한국인의 거절화행 전략: 나이와 남녀 차이*

안정근

(전북대학교)

Ahn, Jeong Khn. (2015). Korean's refusal strategies in requests: Age and gender differences.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23(1). 139-160. This study examines age and gender differences in Korean's refusal strategies in requests. 241 participants in the study provide refusals using a dialogue eliciting questionnaire. Age difference is found in a way that participants under 15 years of age use direct refusal strategies in requests more often than other age groups, particularly the age groups of 30's and 40's which show a great use of indirect refusal strategies. Gender difference is also found in a way that men use direct refusal more often than women. In particular, women use indirect refusal of thanks towards the seniors more often than men whereas men use indirect refusal of reproach towards the juniors more often than women. In addition, women use more refusal strategies than men, particularly towards the familiars. The age groups of 30's and 40's use much more refusal strategies than the age group under 15. These age and gender differences in Korean's refusal strategies in requests clearly indicate that the pragmatic act of refusal is closely related to the social structure and complicated human relations in Korea.

주제어(Key Words): 거절화행(speech act of refusals), 한국인 거절화행(Korean's refusal strategies), 거절화행의 남녀 차이(age and gender difference in refusals)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화용론의 주요 주제 가운데 하나인 요청에 대한 거절화행은 우리가 생활하면서 자주 접하게 되는 아주 민감한 언어행위이다. 요청에 대한 거절이 그 자체로 상대방에 대한 체면을 손상할 수 있으며 (Goffman,1956) 이로 인해 인간관계의 단절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어

* 이 논문은 2014년도 전북대학교 연구기반 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떻게 거절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 그런데 언어가 그것이 사용되고 있는 사회나 문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 언어마다 요청에 대한 거절 전략이 차이를 보인다. 오늘날 다양한 언어와 문화가 한 사회에 뒤엉켜있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문제 중 간과할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거절 전략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의사소통의 문제와 그에 따른 인간관계의 문제다.

요즘은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그에 따른 다언어집단 간 문화와 언어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최근 한국으로 유입되는 결혼이주여성, 유학생, 그리고 한국에서 일하려고 입국하는 일꾼들이 많아지면서 한국인이 보편적으로 행하는 화행이 때로는 이러한 이주 집단에 오해를 일으키거나 또는 그들의 언어행위가 우리에게 오해를 일으키게 되는 것을 목격할 수 있는데 이것은 서로 다른 개별 언어나 문화가 충돌하는 지극히 자연스런 현상이다. 다문화환경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행해온 요청에 대한 거절행위들이 다른 집단에게는 결코 자연스럽게 않을 수 있다는 면에서 최근 다문화연구의 일환으로 행해지고 있는 한국어와 일본어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등의 이질 언어권이 나타내는 거절행위의 비교 연구는 그 자체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비교연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한국인의 거절화행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가 미흡한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한국인의 거절화행과 다른 언어권의 거절행위를 비교하는 여러 연구에서 보이는 일반적인 모습은 그 연구의 대상이 거의 대부분 대학생들이고 그래서 연령층이 대부분 20대에 국한되어 있다. 이러한 편협한 연령층과 더불어 남녀 간의 거절화행의 차이를 밝히려는 시도가 거의 없었다는 점은 한국인의 거절화행에 대한 연구의 단점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령층을 좀 더 세분화하고 또한 한국인의 요청에 대한 거절화행에 어떠한 남녀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려 한다.

2. 연구배경

개별 언어의 화행 차이를 심도 있게 살펴보게 된 계기는 The CCSARP (Cross-Cultural Speech Act Realization Project)가 유럽에서 시작된 1980년대 후반부터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화용론의 주요 분야, 예컨대 사과화행(apology), 감사화행(thanks), 거절화행(refusal) 등이 연구되었다 (Blum-Kulka, 1989; Weizman, 1989). 이 프로젝트는 주로 영어 독일어 히브리어 같은 유럽 언어에 국한하여 여러 가지 화행을 조사하였다는 편협함도 불구하고 이 연구를 기반으로 훗날 한국어나 일본어 같은 다른 언어권에서의 화용 연구를 촉진시켰다는 점에서 그 선구자적 의의가 크다. 다시 말하면 이 프로젝트는 각각의 개별 언어에서 나타나는 제반 화행의 차이를 규명하게 되는 비교화용론의 토대를 마련한 것이었다.

최근 한국이 다양한 인종이 유입되면서 자연스럽게 다문화사회로 변모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어와 문화가 다른 언어와 문화와 충돌하면서 여러 형태의 사회나 언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일례로 동남아에서 이주한 다문화가정에서 보이는 일련의 한국사회 적응의 문제는 하나의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거절화행은 심각한 개인 간의 갈등이나 인간 관계의 단절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한국인이든 이주민이건 거절화행을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적지 않은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전 세계가 가까운 이웃처럼 살아가는 오늘날 한국 또한 이러한 세계화의 흐름에서 벗어 나지 못하고 어느새 다문화 다민족 사회로 변해 가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듯 최근 적 지 않은 비교화행 연구들이 국내외를 망라하고 나타났는데(양명희 & 김려연, 2013; 윤은미, 2004; 혼다 토모쿠니 & 김인규, 2012; 기시 카나코, 2012; 오진환, 2013; 김향선, 2002; 성 화수, 2005; Wu Xiao, 2011; 김언조, 2011) 이러한 연구의 대부분은 한국어와 다른 언어의 거절화행을 비교한 것이다. 한국어 거절화행과 일본어 거절화행을 비교한 연구는 혼다 토모 쿠니 & 김인규(2012), 기시 카나코(2012), 한국어 거절화행과 영어 거절화행을 비교한 연구 는 윤은미(2004), 김향선(2002), 성화수(2005), 김언조(2011), 한국어 거절화행과 중국어 거 절화행을 비교한 연구는 최죽산(2010), 양명희 & 김려연(2013), 오진환(2013), Wu Xiao(2011) 등이며 이들의 공통점은 다른 언어에 비해 한국어 거절화행은 주로 이유제시(어 떠 어떠한 이유 때문에 거절)나 사과하기(요구를 못 들어주어 미안) 같은 간접적인 거절전략 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한국사회에 등장한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그들의 언어행위를 조사한 사회언어학 연구중 특히 최연선(2013)의 베트남 출신 다문화가정에 대한 거절화행 연구가 눈에 띈다. 최 연선(2013)에 의하면 이들 다문화가정의 결혼이주 여성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어의 어 려움 때문에 한국인이 주로 행하는 간접거절화행보다는 직접거절화행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는 것이다.

한국에 온 유학생 또는 한국에 일하러 온 일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언어학 연구들도 (이명희, 2009; 최죽산, 2010) 있는데 이들의 연구는 주로 한중 유학생의 거절화행을 비교하 고 있다. 이것은 최근 중국에서 한국에 온 유학생이 많고 그들의 언어행위가 부각되고 있음 을 반영하고 있다. 이명희(2009)가 지적한 한국학생의 추측성 거절화법과 중국학생의 가능성 없음을 나타내는 거절화법의 차이 또한 크게 보면 한국인의 간접거절화행과 외국인의 직접거 절화행 양상의 차이와 맥락이 비슷한 것이다. 특히 전정미(2010)는 새터민을 대상으로 그들 의 거절화행을 연구했는데 특이할만한 사항은 그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분야 가 거절화행이었다는 점이다. 그들은 주로 직접거절화행을 거절전략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한 국인이 보통 거절전략으로 사용하는 간접거절화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언어 간 비교 거절화행에 대한 적지 않은 연구에 비해 한국어에 개별적으로 나타 나는 거절화행 연구는(강소영, 2004; 전정미, 2006, 2007, 2009, 2012; 허상희, 2010; 최혜 민, 2011; 서아름, 2010; 이견희, 2012; 채영주, 2010) 그리 활발한 편은 아니다. 이것은 거절

화행을 포함한 제반 화용론 연구가 처음부터 다언어권의 화행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화행의 다언어 간 비교연구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개별 언어의 심도 있는 화행연구다. 한 언어권 내에서의 충분한 연구가 밑바탕 되지 않고서는 다언어 간 의미 있는 비교 연구는 가능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강소영(2004)은 한국인 대학생들이 프리포즈를 거절할 때 사용하는 전략이 협력>회피>명시>절충 순으로 그 빈도가 나타난다고 했으며 전정미(2007)는 TV 드라마에 보이는 거절전략은 회피>제압>융화 순으로 그 빈도가 나타난다고 했다. 즉 상황에 따라서 거절전략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이 두 연구에서 보여주고 있다. 전정미(2009)는 사적대화과 공적 대화에 나타나는 거절전략을 비교하면서 사적대화에서는 관계유지를 위해 회피>제압>융화 순으로 그 빈도가 나타나는 반면 공적대화에서는 문제해결을 위하여 제압>회피>융화 순으로 그 빈도가 나타난다고 했다. 전정미(2009)와 유사한 연구로 허상희(2010)가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TV 드라마에 나오는 거절화행을 가족과 직장으로 나누어 살펴보면서 가족 간에는 주로 직접거절전략을 사용하고 있는데 반해 직장에서는 지위와 무관하게 이유나 제안달기 같은 간접거절전략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 역시 상황에 따라 거절전략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채영주(2010)는 거절화행에 있어 공손전략에 대한 연구를 그리고 최혜민(2011), 이견희(2012), 서아름(2010) 등은 한국인의 거절화행을 교육 현장으로 끌어 들여 거절전략의 학습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특히 이견희(2012)는 자연발화에서 나타나는 거절전략이 다양한 형태로 복합적으로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교제에서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단일 형태의 거절전략이 종종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추후 교제를 만들 때 이러한 점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어의 거절화행을 다룬 연구들은 거의 예외 없이 그 대상이 20대를 주축으로 하는 대학생이었다. 강소영(2004), 이정희(2003), 성화수(2005), 이명희(2009), 최죽산(2010), 기시카나코(2012), 이견희(2012), 오진환(2013) 등에서 볼 수 있듯 이들 연구의 대상은 대학생이거나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는 외국학생이다. 또한 연구의 대상에 남녀가 있었음에도 그들의 거절화행 차이를 언급한 연구는 흔치 않다. 최죽산(2010)은 한중 대학생의 거절화행 전략을 고찰하면서 남녀 대학생 간 거절전략의 차이에 대한 간단한 언급이 있었는데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회피나 겸손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했다. 오진환(2013) 또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직접거절이나 주장하기가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했으며 김화진(2006)은 한국인과 일본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거절화행을 연구하면서 남녀의 거절전략이 그다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여자가 남자에 비해 상대방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정도가 약한 거절전략을 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어의 거절화행을 다룬 대부분의 연구들이 대학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사회언어학의 중요한 요소의 하나인 세대 간의 차이를 밝힐 수 없었고 또한 구체적인 남녀의 거절화행의 차이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은 한국어의 거절화행에

대한 부족함으로 인식되는바 본 연구에서는 그 점을 보완하여 세대 간 남녀 간 거절화행의 차이를 중점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요청에 대한 한국인의 거절화행을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6개의 상황을 설정하고 각각의 상황에서 응답자들이 어떻게 초대, 제의, 또는 요구를 거절하는지 설문지를 통하여 알아보았다 (부록 1). 화용론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DCT (Discourse Completion Test) 는 응답을 일정한 틀 안으로 유도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Ahn(2012)에서 사용한 개방형 응답을 사용하여 응답자들이 마음껏 하고 싶은 말을 하도록 했다.

한국인의 거절화행이 친한 관계와 친하지 않은 관계, 선배, 친구, 후배의 관계에서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6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은 관계로 설정했다: 상황 1 (친한 선배), 상황 2 (친한 친구), 상황 3 (친한 후배), 상황 4 (친하지 않은 선배), 상황 5 (친하지 않은 친구), 상황 6 (친하지 않은 후배). 또한 요청을 세분화하여 초대 (상황 1, 4), 제의 (상황 2, 4), 요구 (상황 3, 6)로 나누어 각각의 상황에서 한국인의 거절화행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6개의 상황은 우리가 타인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일반적인 요청 상황이다. 예컨대 돈을 빌려 달라 (상황 3), 점심을 같이 먹자 (상황 4), 일을 도와 달라 (상황 6) 같은 상황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것은 종종 DCT 연구에서 채택하고 있는 응답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상황을 제시하고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응답 할 것 같습니까?’ 같은 가정형 유도화행을 없애기 위함이다.

4. 연구결과 분석

본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는 241명이며 그 중 남자 102명 (42.3%), 여자 139명 (57.7%) 이다. 세대 별로 보면 15세 이하 80명 (33.2%), 16-19세 47명 (19.5%), 20대 25명 (10.4%), 30대 28명 (11.6%), 40대 37명 (15.4%), 그리고 50대 이상 24명 (10.0%) 이다. 10대를 15세 이하와 이후로 나눈 것은 15세(중 2학년)를 전후로 이들의 언어행위가 무척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거절화행은 극단적인 한 마디 거절로서 행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예컨대, ‘안 돼.’) 주로 몇 개의 거절전략이 사용되기 때문에 (예컨대, ‘글쎄... 미안해. 다음에 같이 하자.’) 거절화행

을 분석할 때 거절전략 별로 나누어 분석한 후 거절전략의 수를 합쳐 상황 별 응답자의 거절 전략 수를 산정했다. 본 연구에서는 거절전략에 주로 등장하는 전략을 거절(직접거절), 이유, 사과, 회피, 대안, 감사, 비난의 7가지로 나누어 분석했고 각각의 개별전략에 동일하게 한 포 인트씩 주어 계량분석 했다. 예컨대, 위에서 인용한 ‘글썸... 미안해. 다음에 같이 하자.’ 같은 거절화행은 글썸... (회피), 미안해 (사과), 다음에 같이 하자 (대안) 로 전략을 나누어 분석하고 거절전략의 수는 3으로 계량분석 했다. 또한 ‘초대해 주어 고맙지만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아 갈 수 없어.’ 같은 거절화행은 초대해 주어 고맙지만 (감사),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아 갈 수 없어 (이유)로 나누어 분석하고 거절전략의 수는 2로 분석 했다. 비난의 경우는 거의 나타나지 않지만 10대에서 보이는 ‘미쳤냐. 내가 왜 가.’ 같은 거절화행은 미쳤냐 (비난), 내가 왜 가 (거절)로 나누어 분석하고 거절전략의 수는 2로 분석했다. 이렇듯 다양한 거절전략이 상황 별로 사용되기 때문에 다중응답을 이용하여 SPSS 12.0을 가지고 교차분석 했다.

거절화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변인으로 본 연구에서는 1) 친한 관계(상황 1, 2, 3)와 친하지 않은 관계(상황 4, 5, 6) 그리고 2) 선배(상황 1, 4), 친구(상황 2, 4), 후배(상황 3, 6)의 관계로 나누어 남녀 별 나이 별 거절화행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남녀 별 거절전략 수 차이는 독립표본 t-검정을 사용했다. 나이 별 거절전략 수 차이는 One-way ANOVA를 사용했고 사후검정으로는 Tukey HSD방법을 사용했다.

4.1. 관계정도에 따른 응답 패턴 분석

아래 표 1에서 보이는 것처럼, 한국인 거절화행의 일반적인 패턴은 직접거절보다는 간접 거절인 이유대기, 사과하기, 회피하기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회피하기를 제외하고는 기존연구(김화진, 2006; 최죽산, 2010; 오진환, 2013; Wu Xiao, 2011) 결과와 비슷하다. 본 연구의 친하지 않은 관계에서 회피하기가 기존연구보다 더 많이 일어난 것은 기존연구의 대상이 거의 대학생이었던 것에 비하여 본 연구 대상은 연령층이 다양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아래 표 2 연령에 따른 거절화행의 패턴에 잘 나타나 있듯 30대에서 회피하기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음은 기존 대학생 연구에서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점이다.

(1) 관계정도 및 성별에 따른 응답 패턴 분석

응답자의 성별 거절화행의 차이를 친한 관계와 친하지 않은 관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아래 표 1, 2와 같다.

표 1. 친한 관계

친한 관계		거절	이유	사과	회피	대안	감사	비난	전체
남	N	66	188	99	65	32	7	5	306
	%	21.6	61.4	32.4	21.2	10.5	2.3	1.6	42.3
여	N	53	282	165	120	82	38	2	417
	%	12.7	67.6	39.6	28.8	19.7	9.1	0.5	57.7
전체	N	119	470	264	185	114	45	7	723
	%	16.5	65.0	36.5	25.6	15.8	6.2	1.0	100.0

표 2. 친하지 않은 관계

친하지 않은 관계		거절	이유	사과	회피	대안	감사	비난	전체
남	N	69	192	71	61	37	3	8	306
	%	22.5	62.7	23.2	19.9	12.1	1.0	2.6	42.4
여	N	53	258	120	143	77	16	1	415
	%	12.8	62.2	28.9	34.5	18.6	3.9	0.2	57.6
전체	N	122	450	191	204	114	19	9	721
	%	16.9	62.4	26.5	28.3	15.8	2.6	1.2	100.0

표 1, 2에서 보듯 응답자의 거절화행은 친한 관계든 친하지 않은 관계든 공히 이유 사과 회피 같은 간접거절전략이 직접거절전략보다 훨씬 많이 쓰이고 있다. 친한 관계에서는 이유(65.0%), 사과(36.5%), 회피(25.6%)인데 반하여 직접거절은 단지 16.5% 사용되고 있으며 친하지 않은 관계에서도 이유(62.4%), 사과(26.5%), 회피(28.3%)가 사용되고 있지만 직접거절은 16.9% 밖에 사용되고 있지 않다.

친한 관계와 친하지 않은 관계의 큰 차이는 간접거절전략에서 나타난다. 친한 관계에서는 이유(65.0%)>사과(36.5%)>회피(25.6%) 순임에 반해 친하지 않은 관계에서는 이유(62.4%)>회피(28.3%)>사과(26.5%) 순으로 거절전략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친하지 않기 때문에 친한 관계보다 사과를 많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인 듯하다. 이와 비슷한 차이는 감사하기에서도 나타난다. 친한 관계에서는 감사가 6.2% 임에 반해 친하지 않은 관계에서는 감사(2.6%)로 친할수록 더 감사하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초대해줘서 너무 고맙지만 다른 일이 있어 갈 수 없네요.’같은 거절은 친한 관계에서 더 많이 쓰이고 있다는 것이다.

친한 관계와 친하지 않은 관계의 남녀 거절화행차이를 살펴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직접거절전략을 훨씬 많이 사용한다. 친한 관계에서는 남자가 직접거절을 21.6% 사용하고 있음에 반해 여자는 12.7% 사용하고 친하지 않은 관계에서는 남자가 직접거절을 22.5% 사용하고

있는데 여자는 12.8% 밖에 사용하고 있지 않다. 또한 비난하기도 응답자의 거절전략에 비록 미미하게 사용될지라도 남녀 차이가 있다. 친한 관계에서는 남자가 비난하기를 1.6% 사용하고 있음에 반해 여자는 0.5% 사용하고 친하지 않은 관계에서는 남자가 비난하기 2.6% 사용하고 있는 반면 여자는 0.2% 밖에 사용하고 있지 않다. 즉 직접거절이나 비난하기는 여자에 비해 남자가 훨씬 많이 거절전략에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인간관계의 단절이나 체면을 손상하는 위험한 관계에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친한 관계나 친하지 않은 관계에 공히 나타나는 남녀 거절화행 차이는 여자가 남자보다 회피하기, 대안주기, 감사하기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회피하기는 친한 관계에서 여자가 28.8% 남자가 21.2% 친하지 않은 관계에서는 여자가 28.3% 남자가 19.9%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안주기는 친한 관계에서 여자가 19.7% 남자가 10.5% 친하지 않은 관계에서는 여자가 18.6% 남자가 12.1%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하기 또한 친한 관계에서 여자가 9.1% 남자가 2.3% 친하지 않은 관계에서는 여자가 3.9% 남자가 1.0% 밖에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자는 직접거절이나 비난 같은 위험한 거절전략을 여자는 보다 안전한 간접거절전략인 회피, 대안, 감사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관계정도 및 연령에 따른 응답 패턴 분석

응답자 연령에 따른 거절화행 차이를 친한 관계와 친하지 않은 관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아래 표 3, 4와 같다.

표 3. 친한 관계

친한 관계		거절	이유	사과	회피	대안	감사	비난	전체
15세 이하	N	89	131	70	47	24	2	4	240
	%	37.1	54.6	29.2	19.6	10.0	0.8	1.7	33.2
16-19세	N	17	98	60	38	17	6	3	141
	%	12.1	69.5	42.6	27.0	12.1	4.3	2.1	19.5
20대	N	5	43	31	25	14	6	0	75
	%	6.7	57.3	41.3	33.3	18.7	8.0	0.0	10.4
30대	N	2	59	34	30	24	8	0	84
	%	2.4	70.2	40.5	35.7	28.6	9.5	0.0	11.6
40대	N	1	87	43	29	28	17	0	111
	%	0.9	78.4	38.7	26.1	25.2	15.3	0.0	15.4
50대 이상	N	5	52	26	16	7	6	0	72
	%	6.9	72.2	36.1	22.2	9.7	8.3	0.0	10.0
전체	N	119	470	264	185	114	45	7	723
	%	16.5	65.0	36.5	25.6	15.8	6.2	1.0	100.0

표 4. 친하지 않은 관계

친하지 않은 관계		거절	이유	사과	회피	대안	감사	비난	전체
15세 이하	N	91	119	47	59	13	2	5	239
	%	38.1	49.8	19.7	24.7	5.4	0.8	2.1	33.1
16-19세	N	16	90	50	40	21	1	2	141
	%	11.3	63.8	35.5	28.4	14.9	0.7	1.4	19.6
20대	N	8	46	20	23	16	7	1	75
	%	10.7	61.3	26.7	30.7	21.3	9.3	1.3	10.4
30대	N	2	57	29	33	24	2	1	84
	%	2.4	67.9	34.5	39.3	28.6	2.4	1.2	11.7
40대	N	3	89	21	31	31	3	0	111
	%	2.7	80.2	18.9	27.9	27.9	2.7	0.0	15.4
50대 이상	N	2	49	24	18	9	4	0	71
	%	2.8	69.0	33.8	25.4	12.7	5.6	0.0	9.8
전체	N	122	450	191	204	114	19	9	721
	%	16.9	62.4	26.5	28.3	15.8	2.6	1.2	100.0

표 3, 4에서 보듯 15세 이하에서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직접거절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친한 관계에서 15세 이하는 직접거절을 37.1% 친하지 않은 관계에서는 38.1%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특히 30대(친한 관계 2.4%, 친하지 않은 관계 2.4%) 40대(친한 관계 0.9%, 친하지 않은 관계 2.7%)에 비해 매우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간접거절전략에서도 15세 이하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차이를 보이는데 특히 사과나 감사하기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매우 적게 사용하고 있다. 이들의 사과하기는 친한 관계에서 29.2% 친하지 않은 관계에서 19.7% 사용으로 특히 인접하고 있는 16-19세(친한 관계 42.6%, 친하지 않은 관계 35.5%)하고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감사하기는 친한 관계에서 0.8% 친하지 않은 관계 또한 0.8%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감사의 빈도가 낮다. 즉 15세 이하에서는 사과나 회피 같은 간접거절보다는 직접거절전략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40대에서는 다른 연령층 특히 15세 이하보다 간접거절전략의 하나인 이유달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예컨대 40대는 친한 관계에서 이유 78.4% 친하지 않은 관계에서 이유 80.2%를 사용하고 있는데 반하여 15세 이하에서는 친한 관계에서 이유 54.6% 친하지 않은 관계에서 이유 49.8%를 사용하고 있다. 회피하기 또한 30대(친한 관계 35.7%, 친하지 않은 관계 39.3%)가 다른 연령층보다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특히 15세 이하(친한 관계 19.6%, 친하지 않은 관계 24.7%)에 비해 월등히 많다. 즉 중장년층에서는 15세 이하에 비해 거절의 위험성을 보다 뚜렷하게 인지하고 있고 그로 인한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거절화행에 반영하고

있어 직접거절보다는 이유, 사과, 회피 같은 간접거절전략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한 관계와 친하지 않은 관계에서 큰 차이를 보인 것은 15세 이하의 대안주기와 40대의 사과와 감사하기였다. 15세 이하 대안주기는 친한 관계에서 10.0% 친하지 않은 관계에서 5.4%로 친한 관계일수록 더욱 많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예컨대 ‘오늘 영화를 같이 볼 수 없지만 다음에 꼭 같이 보자.’같은 거절화행은 친한 관계에서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40대 사과하기는 친한 관계에서 38.7% 친하지 않은 관계에서 18.9% 감사하기는 친한 관계에서 15.3% 친하지 않은 관계에서 2.7%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 역시 다른 연령층에 비해 중장년층의 인간관계 중시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즉 이들은 친한 관계일수록 사과나 감사 같은 간접거절전략을 매우 신중하게 행하고 있다.

4.2. 관계유형에 따른 응답 패턴 분석

응답자의 성별 거절화행의 차이를 선배, 친구, 후배 관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아래 표 5, 6, 7과 같다.

(1) 관계유형 및 성별에 따른 응답 패턴 분석

표 5. 선배 관계

선배		거절	이유	사과	회피	대안	감사	비난	전체
남	N	41	138	65	39	23	8	1	204
	%	20.1	67.6	31.9	19.1	11.3	3.9	0.5	42.3
여	N	31	194	106	78	59	37	0	278
	%	11.2	69.8	38.1	28.1	21.2	13.3	0.0	57.7
전체	N	72	332	171	117	82	45	1	482
	%	14.9	68.9	35.5	24.3	17.0	9.3	0.2	100.0

표 6. 친구 관계

친구		거절	이유	사과	회피	대안	감사	비난	전체
남	N	46	121	42	46	34	2	3	204
	%	22.5	59.3	20.6	22.5	16.7	1.0	1.5	42.3
여	N	38	168	71	94	67	13	0	278
	%	13.7	60.4	25.5	33.8	24.1	4.7	0.0	57.7
전체	N	84	289	113	140	101	15	3	482
	%	17.4	60.0	23.4	29.0	21.0	3.1	0.6	100.0

표 7. 후배 관계

후배		거절	이유	사과	회피	대안	감사	비난	전체
남	N	48	121	63	41	12	0	9	204
	%	23.5	59.3	30.9	20.1	5.9	0.0	4.4	42.5
여	N	37	178	108	91	33	4	3	276
	%	13.4	64.5	39.1	33.0	12.0	1.4	1.1	57.5
전체	N	85	299	171	132	45	4	12	480
	%	17.7	62.3	35.6	27.5	9.4	0.8	2.5	100.0

표 5, 6, 7에서 보듯 선배의 초대를 거절하는 경우 응답자들은 간접거절전략 중 이유(68.9%)>사과(35.5%)>회피(24.3%) 순으로 거절화행을 행하였으며 특히 감사(9.3%)하기는 친구(3.1%)나 후배 관계(0.8%)에 비해 훨씬 사용빈도가 높다. 이것은 중장년층의 인간관계 중시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즉 이들은 친한 관계일수록 사과나 감사 같은 간접거절전략을 매우 신중하게 행하고 있다.

친구의 제의를 거절하는 경우 응답자들은 이유(60.0%)>회피(29.0%)>사과(23.4%) 순으로 간접거절전략을 구사했는데 이것은 선배에 비해 친구에게 사과보다는 회피가 더 높은 거절전략으로 통하고 있는 듯하다. 감사하기는 선배(9.3%)>친구(3.1%)>후배(0.8%) 로 관계유형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여 거절전략의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친구 관계에서 눈에 띄는 다른 요소는 대안제시가 다른 관계보다 많다는 점이다. 대안제시는 친구(21.0%)>선배(17.0%)>후배(9.4%)로 친구 관계에서 훨씬 자유롭게 사용되고 있다.

후배의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 응답자들의 거절전략 특징은 앞에서 본 것처럼 대안제시가 가장 약하지만 반면 비난하기는 가장 강하다. 비난하기는 후배(2.5%)>친구(0.6%)>선배(0.2%) 순으로 사용빈도가 나타났는데 이것은 후배니까 좀 더 부담 없이 거절화행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선후배 관계의 위계질서가 거절화행에도 나타나고 있음은 언어와 사회구조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뚜렷한 징표이다.

선배, 친구, 후배 관계로 나누어 성별에 따른 응답자들의 거절화행 차이를 살펴보면 인간관계의 단절을 가져올 수 있는 직접거절은 남자(선배 20.1% 친구 22.5% 후배 23.5%)가 여자(선배 11.2% 친구 13.7% 후배 13.4%)보다 많이 사용하고 있다. 비난 역시 남녀 차이가 보이는데 특히 후배에게 비난하기가 남자(4.4%)가 여자(1.1%)보다 많다.

회피, 대안, 감사 같은 간접거절전략은 모든 관계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이 애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피는 여자(선배 28.1% 친구 33.8% 후배 33.0%)가 남자(선배 19.1% 친구 22.5% 후배 20.1%)보다 많이 사용하고 대안 또한 여자(선배 21.2% 친구 24.1% 후배 12.0%)가 남자(선배 11.3% 친구 16.7% 후배 5.9%)보다 많이 사용하고 있다. 감사하기는 특히 선배에게 여자(13.3%)가 남자(3.9%)보다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즉 감사는 선배에게 여자가 남자보다 많이 사용하지만 비난은 후배에게 남자가 여자보다 많이 사용하고 있다.

(2) 관계유형 및 연령에 따른 응답 패턴 분석

응답자의 연령별 거절화행의 차이를 선배, 친구, 후배 관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아래 표 8, 9, 10과 같다.

표 8. 선배 관계

선배/초대		거절	이유	사과	회피	대안	감사	비난	전체
15세 이하	N	62	92	46	30	6	3	1	160
	%	38.8	57.5	28.8	18.8	3.8	1.9	0.6	33.2
16-19세	N	4	65	40	30	12	6	0	94
	%	4.3	69.1	42.6	31.9	12.8	6.4	0.0	19.5
20대	N	1	38	22	10	14	9	0	50
	%	2.0	76.0	44.0	20.0	28.0	18.0	0.0	10.4
30대	N	2	41	25	18	18	9	0	56
	%	3.6	73.2	44.6	32.1	32.1	16.1	0.0	11.6
40대	N	1	61	20	19	25	12	0	74
	%	1.4	82.4	27.0	25.7	33.8	16.2	0.0	15.4
50대 이상	N	2	35	18	10	7	6	0	48
	%	4.2	72.9	37.5	20.8	14.6	12.5	0.0	10.0
전체	N	72	332	171	117	82	45	1	482
	%	14.9	68.9	35.5	24.3	17.0	9.3	0.2	100.0

표 9. 친구 관계

친구/제의		거절	이유	사과	회피	대안	감사	비난	전체
15세 이하	N	56	82	36	37	20	1	2	160
	%	35.0	51.3	22.5	23.1	12.5	0.6	1.3	33.2
16-19세	N	17	57	33	28	18	1	1	94
	%	18.1	60.6	35.1	29.8	19.1	1.1	1.1	19.5
20대	N	7	21	8	23	12	2	0	50
	%	14.0	42.0	16.0	46.0	24.0	4.0	0.0	10.4
30대	N	1	37	14	24	19	0	0	56
	%	1.8	66.1	25.0	42.9	33.9	0.0	0.0	11.6
40대	N	0	61	14	14	23	7	0	74
	%	0.0	82.4	18.9	18.9	31.1	9.5	0.0	15.4
50대 이상	N	3	31	8	14	9	4	0	48
	%	6.3	64.6	16.7	29.2	18.8	8.3	0.0	10.0
전체	N	84	289	113	140	101	15	3	482
	%	17.4	60.0	23.4	29.0	21.0	3.1	0.6	100.0

표 10. 후배 관계

후배/요구		거절	이유	사과	회피	대안	감사	비난	전체
15세 이하	N	62	76	35	39	11	0	6	159
	%	39.0	47.8	22.0	24.5	6.9	0.0	3.8	33.1
16-19세	N	12	66	37	20	8	0	4	94
	%	12.8	70.2	39.4	21.3	8.5	0.0	4.3	19.6
20대	N	5	30	21	15	4	2	1	50
	%	10.0	60.0	42.0	30.0	8.0	4.0	2.0	10.4
30대	N	1	38	24	21	11	1	1	56
	%	1.8	67.9	42.9	37.5	19.6	1.8	1.8	11.7
40대	N	3	54	30	27	11	1	0	74
	%	4.1	73.0	40.5	36.5	14.9	1.4	0.0	15.4
50대 이상	N	2	35	24	10	0	0	0	47
	%	4.3	74.5	51.1	21.3	0.0	0.0	0.0	9.8
전체	N	85	299	171	132	45	4	12	480
	%	17.7	62.3	35.6	27.5	9.4	0.8	2.5	100.0

표 8, 9, 10에서 보듯 15세 이하에서 나타나는 큰 특징은 관계 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유형에서 직접거절(선배 38.8% 친구 35.0% 후배 39.0%)이 매우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들은 아직 거절화행이 조심스럽게 행해져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15세 이하에서 보이는 관계 유형별 거절전략 차이는 대안주기에서 나타난다. 이들은 선배(3.8%)나 후배(6.9%)보다 친구(12.5%)에게 대안제시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즉 이들에게는 친구가 대안을 제시하는데 보다 편한 상대라는 것이다.

감사하기는 친구나 후배보다 선배에게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모든 연령층에서 나타났는데 특히 20대에서 선배(18.0%)에게 행하는 것이 친구(4.0%)나 후배(4.0%)에게 행하는 것보다 훨씬 많다. 이것은 20대가 선배에게 무척 민감하다는 징표일 수 있다.

이유제시는 40대에서 가장 왕성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른 연령층에 비해 40대는 거절해야 하는 이유를 보다 분명하게 밝힘으로써 거절로 인한 인간관계의 훼손이나 단절을 예방하려고 하고 있다. 이들이 후배(73.0%)보다 선배(82.4%)나 친구(82.4%)에게 더 많은 이유를 제시하는 것을 보면 선배나 친구가 후배보다 더 중요한 듯하다.

50대 이상의 거절화행 특징은 이유, 사과, 회피에 비해 대안이나 감사하기가 너무 적다는 점이다. 특히 후배의 요구를 거절함에 있어 이유(74.5%), 사과(51.1%), 회피(21.3%)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반면 대안(0.0%)이나 감사(0.0%)가 전무한 것이 눈에 띈다. 이들에게 후배는 대안이나 감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모양이다.

4.3. 상황별 응답 수 성별 차이 분석

상황별 응답 수 성별 차이를 검정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t-test)를 실시하였다. 아래 표 11은 본 연구의 6가지 상황별 응답 수 성별 차이를 나타낸 결과표이다.

표 11. 상황별 응답 수 성별 차이

상황	성별	N	Mean	SD	t	p-value
1	남	102	1.61	0.62	-3.866	<0.001
	여	139	1.99	0.83		
2	남	102	1.48	0.56	-3.477	0.001
	여	139	1.76	0.67		
3	남	102	1.44	0.54	-1.963	0.051
	여	139	1.59	0.61		
4	남	102	1.48	0.52	-2.218	0.028
	여	139	1.65	0.65		
5	남	102	1.40	0.58	-1.066	0.287
	여	139	1.48	0.57		
6	남	102	1.44	0.54	-3.049	0.003
	여	139	1.68	0.63		

표 11에서 보듯 응답 수는 상황별로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은 다중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 1(친한 선배 생일 초대 거절)의 경우 여자 응답 수는 1.99개(sd=0.83) 남자 응답 수는 1.61개(sd=0.62)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3.866$, $p<0.001$). 따라서 여자가 남자보다 친한 선배 생일 초대 거절의 경우 더 많은 다중응답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상황 2(영화 보러 가자는 친한 친구 제의 거절)의 경우도 여자 응답 수는 1.76개(sd=0.67) 남자 응답 수는 1.48개(sd=0.56)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3.477$, $p=0.001$). 따라서 여자가 남자보다 친한 친구 제의 거절의 경우 더 많은 다중응답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상황 4와 6에서도 남녀별 거절응답 수 차이가 나타났다. 상황 4(점심먹자는 친하지 않은 선배 초대 거절)의 경우 여자 응답 수는 1.65개(sd=0.65) 남자 응답 수는 1.48개(sd=0.52)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218$, $p=0.028$). 또한 상황 6(일을 도와 달라는 친하지 않은 후배 요구 거절)의 경우도 여자 응답 수는 1.68개(sd=0.63) 남자 응답 수는 1.44개(sd=0.54)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3.049$, $p=0.003$). 즉 한국인은 거절화행을 할 때 거절전략으로 평균 적어도 한 개 이상 많아야 두 개 이하를 사용하고 있으며 여자가 남자보다 거절전략 수가 많음을 알 수 있다.

4.4. 상황별 응답 수 연령별 차이 분석

상황별 응답 수 연령대별 차이를 검정하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를 실시하였고 사후검정으로 Tukey HSD 방법을 사용했다. 아래 표 12는 본 연구의 6가지 상황별 응답 수 연령대별 차이를 나타낸 결과표이다.

표 12. 상황별 응답 수 연령대별 차이

상황	연령대	N	Mean	SD	F	p-value	Tukey HSD
1	15세 이하 ^a	80	1.58	0.63	4.181	0.001	a<d
	16-19세 ^b	47	1.85	0.72			
	20대 ^c	25	2.00	0.71			
	30대 ^d	28	2.14	0.93			
	40대 ^e	37	2.08	0.86			
	50대 이상 ^f	24	1.67	0.76			
2	15세 이하	80	1.56	0.59	1.546	0.176	
	16-19세	47	1.74	0.64			
	20대	25	1.48	0.51			
	30대	28	1.71	0.66			
	40대	37	1.81	0.70			
	50대 이상	24	1.54	0.72			
3	15세 이하	80	1.45	0.57	1.568	0.170	
	16-19세	47	1.49	0.55			
	20대	25	1.48	0.51			
	30대	28	1.75	0.70			
	40대	37	1.65	0.63			
	50대 이상	24	1.46	0.51			
4	15세 이하 ^a	80	1.43	0.52	3.508	0.004	a<d
	16-19세 ^b	47	1.49	0.66			
	20대 ^c	25	1.76	0.60			
	30대 ^d	28	1.89	0.57			
	40대 ^e	37	1.65	0.59			
	50대 이상 ^f	24	1.58	0.65			

5	15세 이하	80	1.36	0.53	1.827	0.108	
	16-19세	47	1.55	0.58			
	20대	25	1.44	0.58			
	30대	28	1.68	0.72			
	40대	37	1.41	0.55			
	50대 이상	24	1.33	0.48			
6	15세 이하 ^a	80	1.41	0.54	2.453	0.034	a<e
	16-19세 ^b	47	1.64	0.57			
	20대 ^c	25	1.64	0.57			
	30대 ^d	28	1.71	0.66			
	40대 ^e	37	1.76	0.68			
	50대 이상 ^f	24	1.50	0.59			

표 12에서 보듯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령대별 응답 수 차이는 상황 1, 4, 6에서 나타났다. 상황 1의 경우 30대 응답 수는 2.14개(sd=0.93) 15세 이하 응답 수는 1.58개(sd=0.63)로 이 두 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응답 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4.181, p=0.001). 따라서 30대가 15세 이하보다 친한 선배 생일 초대 거절의 경우 더 많은 다중응답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상황 4의 경우도 30대 응답 수는 1.89개(sd=0.57) 15세 이하 응답 수는 1.43개(sd=0.52)로 이 두 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응답 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3.508, p=0.004). 즉 30대가 15세 이하보다 점심먹자는 친하지 않은 선배 초대 거절의 경우 더 많은 다중응답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상황 6의 경우는 40대 응답 수는 1.76개(sd=0.68) 15세 이하 응답 수는 1.41개(sd=0.54)로 이 두 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응답 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2.453, p=0.034). 따라서 40대가 15세 이하보다 일을 도와 달라는 친하지 않은 후배 요구 거절의 경우 더 많은 다중응답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종합해보면 30대 40대가 15세 이하보다 여러 거절 상황에서 더 많은 거절전략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5. 관계정도에 따른 응답 수 차이 분석

관계정도에 따른 거절전략 응답 수 차이를 검정하기 위해 대응표본 t-검정(dependent t-test)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응답 횟수는 아래 표 13에서 보듯 친한 관계의 경우 1.67개(sd=0.52) 친하지 않은 관계의 경우 1.53개(sd=0.46)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t=4.606, p<0.001$). 따라서 친한 관계의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응답 수가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각 관계유형에 따라 살펴보면 선배/초대($t=5.006, p<0.001$), 친구/제의($t=4.285, p<0.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관계유형이 선배/초대, 친구/제의일 때, 친한 관계의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응답 수가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표 13. 관계정도에 따른 응답 횟수 차이

구분	친한 관계		친하지 않은 관계		t	p-value
	Mean	SD	Mean	SD		
전체	1.67	0.52	1.53	0.46	4.606	<0.001
선배/초대	1.83	0.77	1.58	0.60	5.006	<0.001
친구/제의	1.64	0.64	1.45	0.58	4.285	<0.001
후배/요구	1.53	0.58	1.58	0.60	-1.226	0.221

5. 결론

한국인 거절화행 연구의 단점 중 하나는 연구의 대상이 주로 20대 대학생에 국한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연구자들 대부분이 대학에 종사하고 있어서 보다 편리하고 쉽게 대학생을 상대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편협한 연구는 한국인 거절화행의 총체적 모습을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연령층을 10대부터 50대 이상으로 확대해서 연령별 거절화행의 차이를 보았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잘 다루지 않았던 남녀별 거절화행의 차이와 거절전략의 횟수를 조사했다.

한국인 거절화행의 특징은 이유, 사과, 회피 같은 간접거절전략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현상은 우리 문화가 가지고 있는 상대방에 대한 공경이나 체면 세우기 등이 거절화행에서도 반영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소위 Brown & Levinson (1987)이 말하는 negative politeness가 한국인의 언어행위에 녹아 있다는 것이다.

연령층을 확대해서 살펴본 본 연구에서 특이한 거절화행은 15세 이하와 30대 40대 중년층에서 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에서 간접거절전략이 이유>사과>회피 순으로 나타났던 것에 반하여 본 연구는 친하지 않은 관계에서 이유>회피>사과 순으로 순서가 바뀐 것은 중년층에서 친하지 않은 관계에서 굳이 사과를 많이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즉 이것은 기존연구의 20대 대학생연구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현상이다. 더욱 분명한 것은 다른 연령층

에 비해 15세 이하에서는 직접거절이 월등히 많이 나타나는 점이다. 이것은 아직 이들이 직접거절이 초래할지도 모르는 인간관계의 훼손이나 단절을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데에서 연유한 것 같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친할수록 감사와 사과 같은 간접거절전략을 사용하고 친하지 않을수록 회피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한국사회에서 선후배관계는 인간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본 연구에서도 선배에게는 감사를 많이 사용하는데 반하여 후배에게는 대안주기마저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인의 거절전략에서 친하나 친하지 않나 또는 선배나 후배나 같은 사회언어학적 요소가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인 거절화행의 남녀 차이도 나타났는데 여자에 비해 남자는 직접거절이나 비난 같은 위험한 거절전략을 그리고 남자에 비해 여자는 회피, 대안, 감사 같은 좀 더 안전한 간접거절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사는 선배에게 여자가 남자보다 많이 사용하지만 비난은 후배에게 남자가 여자보다 많이 사용하고 있다. 즉 전반적으로 여자들이 매우 신중한 거절화행을 행하고 있다는 징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한국인의 평균 거절전략 수는 대략 한 개 반이다. 즉 한국인은 거절화행을 할 때 한 두 개 정도 거절전략을 섞어서 사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친할수록 사용한 전략 수가 많았으며 여자가 남자보다 사용한 전략 수가 많았다. 연령별 차이도 있었는데 30대 40대 중년층이 15세 이하보다 더 많은 거절전략을 사용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제반 한국인 거절화행의 남녀 차이나 연령별 차이는 거절화행이라는 매우 중요한 언어행위가 한국사회의 끈적끈적한 사회구조나 인간관계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으며 그런 점이 언어행위에 반영된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 강소영. (2004). 거절화행에 나타난 남녀대학생의 의식연구. *텍스트언어학회 춘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111-121.
- 구현정. (2005). 담화맥락에서의 조건표지: 조건에서공손으로. *담화와인지*, 12(2), 1-22.
- 기시 카나코. (2012). *한국어교육을 위한 한국어와 일본어의 거절화행 분석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김언조. (2011). 거절방법의 의미전략적 차이: 화행론의 사회문화적 고찰을 중심으로. *사회언어학*, 19(2), 107-130.
- 김은정 & 범기수. (2011). 공손성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관점에서 본 애매한 언술전략에 관한 연구: 공공기관 내 상사-부하 간 커뮤니케이션을 중심으로. *한국광고홍보학회*, 13(3), 234-266.

- 김향선. (2002). *한 영 화행 대조분석*.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 김화진. (2006). *일본어권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거절 화행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 박석준. (2000). 국어 존대법의 커뮤니케이션 기능과 전략에 대하여. *연세대학교 논문집*, 32, 7-26.
- 서아름. (2010). *한국어 학습자의 거절 화행 전략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성화수. (2005). *Contrastive analysis of requests and refusals in Korean and English*.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양명희 & 김려연 (2013). 한국 학생과 중국 유학생의 경어법 사용 비교 연구 -선후배 간 호칭, 인사말, 상대경어법을 중심으로-. *사회언어학*, 21(1), 129-152.
- 오진환. (2013). *한국인과 중국인의 거절 화행에 나타난 표현 대조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 윤은미. (2004). *한국인과 영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거절화행 비교 연구 -체면과 공손성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이전희. (2012). *한국어 거절화행의 교수 학습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진대학교.
- 이명희. (2009). 한 중 대학생의 거절 화행 대조 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34, 313-345.
- 전정미. (2006). 거절 화행의 실현 양상. *한말연구*, 19, 323-345.
- 전정미. (2007). 요청화행에 나타난 공손전략의 실현양상. *한말연구*, 21, 247-268.
- 전정미. (2009). 거절 화행에 나타난 대화 전략 연구. *담화와 인지*, 16(1), 113-134.
- 전정미. (2010). 새터민의 말하기 능력 향상을 위한 화행 교육 방안 연구 -거절하는 말하기를 중심으로-. *우리 말 글*, 49, 111-138.
- 전정미. (2012). 광고 텍스트에 나타난 공손 전략 연구. *사회언어학*, 20(2), 401-423.
- 채영주. (2010). *요청표현에 나타난 공손표현 사용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최연선. (2013). *베트남 출신 결혼 이민자의 거절 화행 전략 양상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최죽산. (2010). 한중 대학생의 거절화행 사용전략 고찰. *한국어와 문화*, 7, 119-160.
- 최혜민. (2011). *한국어 거절 화행 교육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허상희. (2010). 공손법 관점에서 본 거절화행의 실현 양상. *한민족어문학*, 56, 45-76.
- 혼다 토모쿠니 & 김인규. (2012). 한국어, 일본어 거절 화행의 비교 문화 화용론적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43, 563- 595.
- Ahn, J. (2012). Why do Koreans explain a lot when making an apology?.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20(3), 1-15.
- Blum-Kulka, S. (1989). Playing it safe: The role of conventionality in indirectness. In S. Blum-Kulka, J. House & G. Kasper (Eds.), *Cross-cultural pragmatics:*

- Request and apologies* (pp. 37-70). Norwood: Ablex.
- Brown, P. & Levinson, S. (1987). *Politeness: Some universals in language us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offman, E. (1956). *The Presentation of Self in Every Day Life*. Edinburgh: University Edinburgh Press.
- Weizman, E. (1989). Requestive hints. In S. Blum-Kulka, J. House & G. Kasper (Eds.), *Cross-cultural pragmatics: Request and apologies* (pp. 71-92). Norwood: Ablex.
- Wu Xiao. (2011). *한국어와 중국어의 거절 화행 전략 비교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부록

설문지 성별 (남 여) 나이 ()세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당신은 어떻게 거절하시겠습니까?

1. 자기 생일 모임에 와 달라는 친한 선배의 초대를 거절하고 싶습니다.

선배: 내 생일 모임에 올래?

당신:

2. 영화를 보러 가자는 친한 친구의 제의를 거절하고 싶습니다.

친구: 영화 보러 갈래?

당신:

3. 돈을 빌려 달라는 친한 후배의 요구를 거절하고 싶습니다.

후배: 돈 좀 빌려 줄 수 있습니까?

당신:

4. 점심을 사줄 테니 식당으로 나오라는 친하지 않은 선배의 초대를 거절하고 싶습니다.

선배: 점심 사줄 테니 식당으로 나올래?

당신:

5. 운동을 같이 하자는 친하지 않은 친구의 제의를 거절하고 싶습니다.

친구: 운동 같이 하지 않을래?

당신:

6. 일을 도와 달라는 친하지 않은 후배의 요구를 거절하고 싶습니다.

후배: 일 좀 도와 줄 수 있나요?

당신:

Jeong Khn Ahn

Department of English

College of Humanitie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Jeonju, Korea 561-756

Phone: 82-63-270-3213

Email: jkahn@jbnu.ac.kr

Received on December 30, 2014

Revised version received on March 6, 2015

Accepted on March 17, 2015